

중국 대외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화세계(和諧世界)’의 제기와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하도형*

I. 서론

II. 조화세계론의 등장과정과 배경

III. 조화세계론의 내용

IV. 조화세계론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

V. 결론

조화세계의 제기는 그 동안의 경제적 성장에 기반한 중국의 부상이 대외정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3단계 발전전략에 따라 21세기 중엽 중등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다는 국가발전전략에 부응하는 대외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화세계론, 혹은 목표의 제시는 장기적 전략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제시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이며, 이러한 목표의 제기에는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중국 대외정책의 전환과정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의 대외정책 전환은 개혁개방 초기에 제기되었던 기존의 피동적, 국외자적 도광양晦(韬光養晦) 전략을 이미 탈피하여, 화평굴기(和平崛起)의 제기를 바탕으로 하는 대외정책 전환의 진입단계와, 평화발전(和平發展)의 제기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단계를 거쳐, 조화세계의 제기를 통한 대외정책 전환의 심화, 또는 근본적 전환의 단계에 이르는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쳤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조교수 dhchoice@hanmail.net

특히, 본 논문에서 조화세계의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비록 중국에서 조화세계를 외교이념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측면에서의 완결된 논리구조와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조화세계론의 전략적 측면을 중심으로 의도와 한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접근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 중국, 대외정책, 전환, 조화세계

I. 서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과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재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변화와 함께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일정한 전환이 발생하였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과 함께 덩샤오핑(鄧小平)이 '평화와 발전'이 시대적 주제라고 직시하면서 이미 한 차례 큰 전환을 가져온 바 있다. 국제정세와 시대의 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적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외정책은 이데올로기 중심의 폐쇄적인 대외정책에서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개방적 대외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부상을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적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동안의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강대국을 지향하는 세계전략의 마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제체제와 세계질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의 제시를 모색하는 대외정책의 근본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중국 대외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에 제기한 ‘조화세계(和諧世界)론’을 들 수 있다. 조화세계론이 의미하는 바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식적 언급은 2005년 9월 1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창립 60주년 정상회의에서 행한 「지속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세계 건설에 노력하자」²⁾라는 연설로 볼 수 있다.³⁾ 이와 함께 조화세계는 동년에 개최된 16기 5중전회 공보(公報)에 명시됨으로써 당대회의 공식문건에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프랑스에서 「서로 다른 문명을 존중하고, 조화세계를 함께 건설하자」⁴⁾는 연설을 하였으며, 12월에 발간된 외교백서인 『중국 평화발전의 길』⁵⁾에도 조화세계가 명시됨으로써 이미 중국의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화세계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기되어져 왔다. 2006년 8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의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는 “조화세계의 건설을 추동하는 것은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평화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개괄하면서 주력해야 할 4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⁶⁾ 그리고 16기 6중전회의 공보에서는 조화세계의 개념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당대회를 분석한 『瞭望』의 ‘6중전회 정신의 독해’에 대외정책부문

2) 胡錦濤, 『人民日報』 2005-9-16, 제1면.

3)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조화세계가 의미하는 개괄적인 내용이 제시된 것이 유엔연설이며, 이보다 앞서 이미 조화세계라는 용어가 두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4) 溫家寶, 『人民日報』 2005-12-07, 제3면.

5)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和平發展道路』, 2005. 10.의 제5장에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6) “中央外事工作會議在京舉行”, 『人民日報』, 2006-8-24, 제1면.

과 관련하여 외교학원 부원장인 천야칭(秦亞青)이 쓴 “조화사회와 조화세계”⁷⁾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17차 당대회 보고에서 조화세계가 다시 언급되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의 왕이조우(王逸周) 부소장은 “평화발전과 독립자주의 길은 우리나라 외교가 신봉하는 준칙이며, 우리나라가 대외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 필연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조화세계 건설을 추동하고 세계 각국과 협력, 공영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가 주력하는 발전의 목표이며, 이 양자간에는 내재적이고 불가분의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칭화(淸華)대학의 리우장용(劉江永)교수는 “17차 당대회보고에서 외교이념과 국가의 총체적 전략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었으며, ‘조화세계’ 건설의 웅대한 목표 추진과 중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발전’의 장기적 전략이 함께 결합되었고, 이는 매우 긴 시간동안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기본방침이 될 것”이라고 언급⁸⁾함으로써, 조화세계가 중국 대외정책의 목표로 부상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화세계론의 제기는 그 동안의 경제적 성장에 기반한 중국의 부상이 대외정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3단계 발전전략에 따라 21세기 중엽 중등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다는 국가발전전략에 부응하는 대외정책 수립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화세계론, 혹은 대외정책의 목표 제시는 장기적 전략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제시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이며, 이러한 목표의 제기에는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7) “瞭望文章：多領域資深專家解读六中全會精神”，(검색일: 2006-10-20)

8) “專家解读十七大報告中的中國外交新理念”，中國廣播網，(검색일: 2007-12-10)

조화세계 개념의 제기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조화세계론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외정책의 지향이 가지는 전략적 의도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조화세계의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비록 중국에서 조화세계를 외교이념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측면에서의 완결된 논리구조와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조화세계론의 전략적 측면을 중심으로 의도와 한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접근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중국 대외정책의 전환과정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음을 주장해 보고자 한다. 즉, 중국의 대외정책 전환은 개혁개방 초기에 제기되었던 기존의 피동적, 국외자적 도광양晦(道光養晦) 전략을 이미 탈피하여, 화평굴기(和平崛起)의 제기를 바탕으로 하는 대외정책 전환의 진입단계와, 평화발전(和平發展)의 제기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단계를 거치, 조화세계의 제기를 통한 대외정책 전환의 심화, 또는 근본적 전환의 단계에 이르는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쳤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화세계론의 등장과정과 배경

앞에서 공식적인 조화세계 개념의 최초 등장이 후진타오의 유언연설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사실 ‘조화’라는 용어는 이미 2002년 16차 당대회 개최시에 언급된 바 있다. 장쩌민(江澤民) 총서기는

16차 당대회 정치보고의 제9장인 「국제형세와 대외업무」편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세계다극화의 추진과 다중 역량의 조화로운 병존(和諧並存)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며, 국제사회의 안정유지를 염원한다”⁹⁾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조화’개념을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보고에서는 ‘공동발전’, ‘공동추진’, ‘공동이익’, ‘공동노력’, ‘공동번영’, ‘공동협상’, ‘공동수호’ 등과 같은 7회에 걸친 ‘공동’이라는 자구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곧 국제체제 내부로의 본격적 진입을 의도하는 것으로써, 기존 대외정책의 전략방침인 ‘도광양희, 유소작위(韜光養晦, 有所作爲)’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5차 당대회의 정치보고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5년간의 16차 당대회 기간중에 제시되는 외교정책의 방향성과 특징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즉, 16차 당대회 기간중에 순차적으로 제시된 화평굴기와 평화발전, 조화세계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한 국제체제내부로의 본격적 진입을 의미하며, 따라서 16대 기간은 후진타오의 권력승계와 함께 중국 대외정책의 전환이 시도된 특징적인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화세계의 등장과정과 16대 기간의 대외정책전환에 대한 단계적 변화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화평굴기와 평화발전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평굴기를 최초로 제기한 정비젠(鄭必堅)의 연설문에 근거해 보면, 화평굴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⁰⁾ 첫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성

9) 江澤民, 2002-11-17.

10) 鄭必堅, 2005, pp.1174-1179.

장을 이루면서 세계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였지만, 13억의 인구와 다방면에 걸친 국내문제로 인해 2~3세대를 거친 21세기 중엽에 중등수준의 선진국에 이를 수 있다. 둘째, 중국은 경제세계화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부상하며, 평화를 견지하고 패권을 다투지 않는다. 셋째, 중국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국가, 특히 우선적으로 주변국가의 발전과 번영,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요약해 보면, 중국의 부상은 패권을 추구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며, 현 세계체제와 질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대외정책의 주요한 전략적 입장이었던 도광양희와는 일정정도 구별된다. 즉, 기존의 도광양희의 소극적, 주변부적 위상을 탈피하고 현존 국제질서와 체제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대외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중국위협론에서 제기되었던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과 지위상승의 자타공인에 대한 희망을 표출하고, 세계체제와 질서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적극적 행위자로 등장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혁개방 이후 줄곧 유지되어 왔던 도광양희의 입장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대외정책전환의 진입단계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대외정책전환의 단계는 이미 그 이전부터 준비단계를 거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의 강대국 부상의 측면에서 외교정책이 완만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방향이 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¹¹⁾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 대외정책전환은 16차 당대

회 이전시기부터 일정한 준비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음은 외교전략적 차원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 제기한 도광양회로부터 일정정도의 이탈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중국 외교학원의 우젠민(吳建民) 원장은 2005년 전국청년연맹전체위원회 회의에서 행한 강연에서, 덩샤오핑이 주창한 도광양회가 이미 흘러간 과거의 정책이라는 국내 언론의 시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도광양회는 최소한 100년간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말을 상기¹²⁾시키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면적으로는 이미 기존의 세계체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소극적 외면, 혹은 회피적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추동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에 제기되었던 책임 대국론의 입장도 결국 따지고 보면, 세계체제의 국외자적 자세를 탈피하여 현존 세계질서 속으로의 진입과 함께 대국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화평굴기를 통한 중국의 대외정책 전환은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평화발전으로 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¹³⁾, 이와같은 과정은 대외정책전환의 조정단계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당시에 진행된 논란의 주요내용은 외교전략 전환에 대한 조건의 구비성과, 타당성, 제약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교전략 전환조건의 구비성으로써, 외교전략에 대한 조정에 있어 중국

11) 김재철, 2005년, pp.113-140; 이동률, 2006년, pp.344-375.

12) <http://news.media.daum.net/>(검색일: 2006-12-10)

13) 화평굴기에서 평화발전으로의 전환과정에 대해 연구한 국내 연구자의 논문으로, 김예경, 2005, pp.215-233.

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거나,¹⁴⁾ 여전히 도광양회의 정책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있다.¹⁵⁾ 둘째로는, 외교전략전환의 타당성으로써, 중국부상의 선언이 중국 위협론의 확산과 미국의 대중억제정책 강화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으며,¹⁶⁾ 셋째, 외교전략전환에 따른 제약성으로써, 타이완 문제 해결에 있어 무력개입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¹⁷⁾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화평굴기에 대한 언급은 공식석상에서 점차 사라졌고,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평화발전의 개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화평굴기에서 평화발전으로의 조정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다. 첫째, 화평굴기와 화평발전은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둘째, 화평발전을 통해 새로운 개념적 함의를 제기하지도 못하였으며, 셋째, 따라서 용어의 수정을 제외한다면 화평굴기에서 제기된 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넷째,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외교정책의 전환이라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화외교정책과 비교되는 뚜렷한 심화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¹⁸⁾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결국 도광양회적 입장으로 회귀하는 경향성도 보임으로써, 도광양회와 함께 제기된 유소작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확산되기도 하였다.¹⁹⁾

14) 王庆东, 검색일:2005-5-20.

15) 각주 11번을 참조하십시오.

16) “論題背景: ‘中國和平崛起’論的由來”, 검색일: 2006. 5. 20

17) 한석희, 2004, p.120.

18) 이러한 내용은 화평굴기를 제안한 청미젠 스스로가 여러차례에 걸쳐 화평굴기와 평화발전을 동일한 신상에 놓고 언급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鄭必堅, 2005, p.1283, p.1334.

19) 王鵬生,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2-10)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현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조화세계의 전략방침의 제기와 함께 논란의 여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평굴기의 제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우젠민 조차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며, 조화세계의 전략방침을 지지하고 있다.²⁰⁾ 결국, 화평굴기와 평화발전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전략적, 이념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조화세계론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외교정책전환의 심화단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전환과정을 거쳐 등장한 조화세계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개방과 함께 제기된 도광양희의 소극적, 주변자적 입장과는 근본적인 전환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국력과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에 있어 근본적인 방향적 전환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국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패러다임의 제기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²¹⁾

이러한 조화세계의 등장은 국제무대에서 공식적, 전면적으로 제시된 후진타오의 2005년 9월 유엔연설 이전에도 두 차례 걸쳐 언급된 바 있다. 조화세계라는 용어는 2005년 4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진타오 연설에서 “상이한 문명의 우호적 공존과 평등한 대화, 발전과 번영을 추동하여, 함께 조화세계를 구축하자”²²⁾는 언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동년 7월 1일, 후진타오의 방러 기간 중에 발표된 연합성명에도 삼

20) “吴建民：和谐世界的中国责任”，<http://news.sina.com.cn> 검색일 2006-11-20.

21) 王公龍, 2007.

22) 胡锦涛在亚非峰会上发表重要讲话, 2005-4-22. 원문은 다음과 같음. “推动不同文明友好相处‘平等对话’发展繁荣, 共同构建一个和谐世界”.

입되어 있다.²³⁾ 이와 같이 조화세계론은 처음부터 일정한 개념적 완결성을 가지고 제기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환경적 변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정책적 방침을 모색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조화세계론의 내용

조화세계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용어가 처음 공식적, 전면적으로 제기된 후진타오 주석의 유엔 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동 연설에서 조화세계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첫째,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공동안보를 실현하며, 둘째, 상호이익협력을 견지하여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셋째, 포용정신을 견지하여 조화로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고, 넷째, 온당한 방침을 견지하여 유엔개혁을 추진한다.²⁴⁾

그러나 이와 같은 개괄은 조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에 가까우며, 조화세계가 지향하는 이념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 입장이 표명된 것은 2006년 8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외사공작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4가지의 구체적 주력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상호존중, 인식공유 확대, 조화로운 공존, 각국 인민의 자주

23) 「中俄關於21世紀國際秩序的聯合聲明」, 2005-7-1.

24) 胡錦濤, 『人民日報』 2005-9-16.

25) 「中央外事工作會議在京舉行」, 『人民日報』, 2006-8-24 제1면.

적인 사회제도와 발전경로선택 존중, 각 국가의 평등적 국제사무 참여
권지, 국제관계의 민주화 촉진.

둘째, 협력심화, 공동발전, 상호이익과 공영, 경제 글로벌화와 과학
기술 진보 성과의 공동 향유, 세계의 보편적 번영 촉진.

셋째, 다른 문명과의 교류 강화 및 이해증진과 상호발전 촉진, 세
계의 다양성 제창, 인류문명의 발전과 진보 추동.

넷째, 각국과의 상호신뢰 심화 및 대화강화와 협력증진, 인류가 당
면한 각종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국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촉진, 세계와 지역의 안보와 안정 수호.

이러한 조화세계의 개념은 국내정책적 측면에서 제기된 조화사
회의 단순한 용어적 확대가 아닌 대외정책적 측면에서의 조화의 개
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조화세계에 대한 공식적 확인과 함께, 유엔연설 1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언론매체의 홍보와 함께 개념적으로도 점차 풍부해져 갔다.

신화사는 조화세계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에서, 조화
세계가 중국의 지혜를 이용하여 세계의 청사진을 그린 중국외교사
상의 신발전이라는 제목하에 이념, 역사, 현실, 실천면으로 나누어
학자들과 관료들의 대담내용 및 주장과 기사를 실은 『반월담』을
전재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총괄하고 있어, 조
화세계의 함의를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다.²⁶⁾

우선, 이념면에서는 深, 變, 通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왕근화(王根華: 외교부 정책연구
사 처장 外交部政研司處長)는 ‘심’의 측면에서, 대국은 대이상(大
理想)이 필요하며 조화세계는 중국의 연성권력을 끌어올리고 글로

26) 建设和谐世界：中国外交思想的新发展,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0-20.

별체제에서의 담론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에는 경제적, 물질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번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변’의 측면에서, 조화세계는 현시대와 중국의 신분, 심리상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방관자와 방문자로부터 건설자와 참여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통’의 측면에서 조화세계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대내정치(조화사회), 인류행복추구의 보편적 희망과 통한다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화세계가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화합’사상을 중심으로 ‘조화’의 개념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다.²⁷⁾

그리고, 역사편에서 조화세계는 인류가 줄곧 추구해 왔던 이념임을 주장하고,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과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계승하는 가운데 이루어 낸 창조적 혁신임을 주장하고,²⁸⁾ 현실편에서, 현재의 세계추세가 조화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와 함께 5가지 장애요소를 제기하였다.²⁹⁾ 마지막으로 실천편에서는, 대국관계와 주변국 관계, 개발도상국, 국제질서, 인류성과의 측면에서 중국이 실천하고 있는 조화세계의 사례를 소개하였다.³⁰⁾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중국의 ‘조화세계건설’은 협력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안보환경을 마련하고,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유도하며, 다양성의 인정을 통해 단극체제의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저변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선

27) “和谐世界”里的丰富世界,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0-20.

28) 张建, 人类追求和谐的脚步,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0-20; 赵青福,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0-20.

29) 人类正步入建设和谐世界的机遇期,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0-20; 刘韦玮, 妨碍世界和谐的五大因素,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0-20.

30) 建设和谐世界的三大着力点,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0-20; 中国外交交出“和谐”答卷,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0-20.

도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질서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했던 시기를 벗어나면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위해 제기했던 화평굴기가 중국 위협론을 해결해 주지 못함에 따른 전략적 수정으로 볼 수 있으며, 부상이 담고 있는 강대국화와 패권추구, 군사대국화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면서도, 미국이 중심이 된 단극적 국제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수립된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화세계론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정책적 측면과 함께 그것이 인류보편의 가치체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적 측면으로 등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도, 화평굴기와 평화발전이 가졌던 한계처럼, 과연 중국이 미국주도의 단극적 질서속에서 이러한 전략적 개념을 실천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가능성의 문제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는 수많은 싱크탱크들이 존재하고, 조화세계 개념의 풍부화를 위해 이들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³¹⁾ 또한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상 싱크탱크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한 내용은 그 제안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지적소유권도 공산당과 중앙정부에 소속됨으로써,³²⁾ 당과 국가차원의 공식적 대외방치로 자리잡으면서 점차 내용적으로 풍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31) 2006년 6월 상하이의 모 연구소에서 진행된 필자의 인터뷰에 근거함.

32) 2006년 6월 상하이에서 진행된 필자의 인터뷰에 근거.

IV. 조화세계론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

지금까지 조화세계 개념의 제기배경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화세계가 사상적, 철학적 측면에도 그 바탕을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된 대외정책의 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에서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 그 전략적 의도라고 할 수 있겠다.³³⁾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화세계의 제기를 통해 중국이 추구하는 목적과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형성(image-making)이다. 조화세계론의 제기는 기존의 화평굴기와 평화발전을 통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중국 위협론에 대한 불식전략과 함께, 더욱 더 능동적인 상황타개를 위해 기존의 화평굴기와 평화발전이 제시하지 못한 보편적, 구체적 이상과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한 보편적 이상제시를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추출함으로써 강대국의 이미지에 걸맞는 문화적 역량(soft power)을 가진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조화세계의 제기이후 화של계에서 논의되던 연성권력에 대한 논의가 언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³⁴⁾ 연성권력

33) 현 중국 외교부 장관인 양제츠(楊潔篪)의 동생인 양제현(楊潔勉) 상하이 국제문제 연구소 부소장 역시 조화세계의 이념을 장기적 목표와 중단기적 구체적 임무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적 측면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楊潔勉, 2007, p.62

34) 从和谐世界看中国软实力,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0-20; 胡鞍钢: 和谐也是硬道理 已成为中国最大软实力,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06-10-20; 提升国家软实力是国家战略发展的需要, <http://news.sohu.com> 검색일: 2006-10-20; 世界评说中国软实力, <http://world.people.com.cn> 검색일: 2006-10-20 등 이에 관한 내용은 부지기수이다.

을 처음 제기했던 나이(Nye) 역시 국가 연성권력의 주요 자원으로 문화와 정치적 가치관, 대외정책을 지적하고 있다.³⁵⁾ 조화세계는 이러한 연성권력의 3가지 주요자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성권력의 부족을 연성권력을 통해 보완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정치경제의 신질서 수립 시도를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곧, 중국적 가치관과 비전을 바탕으로 세계체제와 질서의 보편적 이상과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담론권 확대와 게임규칙의 제정권 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경성권력(Hard power)에 의해서 추구되기 보다는 국제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위상확보의 연성권력(Soft power)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성권력적 접근은 중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문화와 가치관의 확산을 위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로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각 국에 공자학원 이라는 명칭하에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보급하는 기관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³⁶⁾ 이러한 문화적 공략을 조화세계의 관점에서 파악해 본다면, 연성권력 형성의 기반조정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다. 즉, 중국어와 중국의 문화를 세계각지에 보급함으로써 조화세계가 합의하는 철학적, 사상적 측면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기반조성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전통문화에 기반한 가치관과 질서관을 이해시키는 토양을 마련하는 전략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우

35)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11

36) 汉语热彰显文化软实力, 『中國改革報』, <http://www.crd.net.cn> 검색일: 2006-12-10

선, 조화세계는 중국의 전통사상인 화(和)가 가지는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국의 전통사상자체가 아직까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념이 가지는 본원적 의미를 이해시키는 자체가 상당히 지난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즉, 조화세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것 보다도 중국전통사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특히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인 서구적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둘째로 연성권력적 접근은 경성권력을 바탕으로 하며 중국이 이러한 조건과 능력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현실적 제약의 극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즉, 중국이 제시하는 연성권력적 가치체계는 중국의 발전과 역량적 지위와 병행되어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일인당 소득과 대다수 인민들의 문화적 향유의 수준이 일정정도의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예상된다. 이는 곧 외교정책전환의 추구방향과 현실적 상황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결국 조화세계를 통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강대국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강대국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화세계라는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한 보편적 이상 제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요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질서세계'와 중국의 '조화세계'는 평행하면서도 중첩되는 것으로, 중국이 '조화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질서세계'의 현실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도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도전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즉, 중국이 국제체제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진입한

37) 俞新天, 2007年, pp.21-22

시간이 아직 짧으며, 현존 국제체제에 대한 학습과 적용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나 혁신을 주도하기에는 제한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현실적 차원에서 이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는 강대국의 위상정립에는 이에 부합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 핵실험과 같은 사태에 대한 대처가 조화세계의 현실적 추진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은 군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방지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유된 인식보다는 중국의 안보를 위한 북한의 존재가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자국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리고 특히 미국의 압박과 보편적 국제질서에 대한 이상의 제기에서 오는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큰 난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이러한 한계에 근거해 볼 때, 결국 조화세계론은 아직까지 완전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출발단계에 머무르고 있다.³⁹⁾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화세계론의 제기가 현재적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자 한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단극적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과 비난 및 이에 따른 미국과의 마찰은 중국의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대항적(negative) 전략은

38) 이와 같이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 충돌할 경우 중국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劉建飛, 2007

39) 최근 중국 연민(인민)대학에서 개최된 “‘和諧世界’理論與中國新外交” 토론회에서 건민대학의 교수인 리징즈(李景治)와 진찬봉(金燦榮)교수도 이러한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王星宇, 2007, p.61

상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우호적 관계수립이라는 협력적(positive) 전략을 통해 중국은 국제체제와 세계질서에 좀 더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화세계론의 제기는 두 가지 측면의 전략적 이점을 가진다. 하나는 현존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도전적, 위협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현존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융화되는 가운데 평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 국제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과거 중국이 일관되게 비난해 왔던 미국 주도의 단극적 세계질서와 이에 따른 패권주의적, 강권주의적, 비민주적 폐해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체제가 가진 문제점과 더불어 개선방향 까지 제시하는 새로운 차원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질서의 변화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대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조화세계론은 장기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상황에서도 전략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의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의도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전환을 바탕으로 강대국의 요소를 구비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영향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증가되는 국력과 영향력에 부합하는 책임의 이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지 못할 경우 조화세계론은 중화민족의 부흥에 편향된 빛바랜 비전으로 전략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V. 결론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조화세계의 제기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념적 방향을 제기함과 동시에 장기적 목표이며, 또한 전략적 의도를 가진 실천적 대외정책의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조화세계 제기의 과정과 내용, 의도 및 목적, 그리고 한계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이 지금까지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이에 따른 국제적 지위향상이 반영된 외교정책전환과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여겨진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중국의 현실적 지위와 추구하는 전략적 의도 사이에는 여전히 일정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세계론의 제기가 중국 대외정책 전환의 심화, 혹은 근본적 전환으로 보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화평굴기나 평화발전이 중국의 부상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목표인데 반해, 조화세계는 국제질서적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곧, 지금까지 세계질서의 편입에 주력해 왔던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세계질서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대외정책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존의 화평굴기와 평화발전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의 하나인 평화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조화세계는 '화(和)'의 개념에 기반한 중국의 전통사상과 가치를 세계의 보편적 질서관으로 수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을 주창하되, 이에 대한 이념적 기반을 중국의 전통사상에서 찾는으로써, 중국이 강대국으로써의 철학적, 사상적, 이념적, 역

사적 전통과 역량, 그리고 자격이 있음을 표방하려는 의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북핵사태의 예에서 세계질서와 체제에 대한 보편적 이상과 비전, 청사진의 제시에 따르는 영향력 확대의 이면에는 보편적 이상과 비전, 청사진을 실천하는 역할과 책임도 뒤따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기존의 세계질서를 패권적, 강권적, 일방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도광양회적 차원에서 세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공동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일정정도 회피하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질서를 리더하는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국의 이익만을 편향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강대국의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확산 방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유된 인식에 바탕하면,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가 가해져야 하겠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압박에의 국제질서적 동참이 북한정권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중국은 순망치한적 완충지대를 잃는 안보적 위협에 봉착할 수도 있다. 조화세계를 통한 세계질서와 체제에 대한 이상과 비전의 제시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이자, 숙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의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조화세계실현의 관건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조화세계론의 제기와 실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한 강대국화의 경향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중국이 조화세계를 통해 우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경우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안보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활동범위와 역량이 강화되면서 영향

력이 확대될 경우 이에 따른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근거하여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조화세계의 한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필요한 국제적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압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예경. 2005.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pp.215-233.
- 김재철. 2005. “중국의 강대국 대외정책”. 『국가전략』. 제11권 3호. pp.113-140
- 이동률. 2006. “중국 ‘책임대국론’의 외교 전략적 함의”. 『동아연구』. 제50집. 2006년 2월. pp.344-375.
- 한석희. 2004.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변화: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화평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1권 3호 가을. p.120.
- Joseph Nye.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york: Public Affairs. p.11
- 江澤民. 2002. 「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2-11-17.
- 劉建飛. 2007. “‘中國責任論’考驗和平發展”. 『現代國際關係研究』. 第4期.
- 楊潔勉. 2007. “試論和諧世界理念與國際體系轉型的互動”. 『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 第1期.
- 溫家寶. 2005. “尊重不同文明，共建和諧世界”. 『人民日報』2005-12-07. 제3면.
- 王公龍. 2007. “‘和諧世界’: 國際秩序的新構想和新范式”. 『現代國際關

係研究』,第3期.

王星宇. 2007. “‘和諧世界理論與中國新外交’研討會綜述”.『現代國際關係研究』,第6期.

俞新天. 2007. “軟力量建設與中國對外戰略”.『國際問題論壇』,秋季號, pp.21-22

鄭必堅. 2005.『鄭必堅論集(下卷)』,上海人民出版社. pp.1174-1179. p.1283. p.1334

胡鮑壽. 2005. “努力建立持久和平’ 共同繁榮的和諧世界”.『人民日報』 2005-9-16. 제1면.

“中央外事工作會議在京舉行”.『人民日報』, 2006-8-24. 제1면

「中俄關於21世紀國際秩序的聯合聲明」, 2005-7-1.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中國的和平發展道路』, 2005. 10. 제5장.

胡锦涛在亚非峰会上发表重要讲话. 2005-4-22.

刘韦玮. 妨碍世界和谐的五大因素. 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8/23/content_4993067_6.htm(검색일: 2006.10.20).

吴建民. “和谐世界的中国责任”. <http://news.sina.com.cn/c/2006-11-10/151011480290.shtml>(검색일: 2006.11.20).

王庆东. “和平崛起要应对挑战”. <http://www.people.com.cn/GB/junshi/2380357.html>(검색일: 2005-5-20).

王嵎生. “关于‘韬光养晦’的再思考”. http://news.xinhuanet.com/globe/2004-07/08/content_1582850.htm

张建. 人类追求和谐的脚步. 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8/23/content_4993067_3.htm(검색일: 2006.10.20).

赵青海. 从和平共处五项原则到“和谐世界”新理念—中国外交思想在继承中发展’ 创新. 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8/23/content_4993067_4.htm (검색일: 2006.10.20).

胡鞍钢. 和谐也是硬道理 已成为中国最大软实力.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6-10/13/content_5196755.htm(검색일: 2006.10.20).

建设和谐世界：中国外交思想的新发展. 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8/23/content_4993067.htm(검색일: 2006.10.20).

“論題背景：‘中國和平崛起’論的由來”。http://news.xinhuanet.com/heard/2004-04-07/content_1406123.htm(검색일: 2006.5.20).

“瞭望文章：多領域資深專家解讀六中全會精神”。http://news3.xinhuanet.com/politics/2006-10/15/content_5204767_2.htm(검색일: 2006.10.20).

世界評說中國軟實力。<http://world.people.com.cn/GB/1030/4438331.html>(검색일: 2006.10.20)

人類正步入建設和諧世界的機遇期。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8/23/content_4993067_5.htm(검색일: 2006.10.20).

提升國家軟實力是國家戰略發展的需要。<http://news.sohu.com/20061117/n246441774.shtml>(검색일: 2006.10.20).

“專家解讀十七大報告中的中國外交新理念”。中國廣播網。http://www.cnradio.com.cn/2007zt/sqdfs/sswz/20071102_504610787.html(검색일: 2007.12.10).

從和諧世界看中國軟實力。http://news.xinhuanet.com/world/2005-12/19/content_3939728.htm(검색일: 2006.10.20).

中國外交交出, “和諧”答卷。”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8/23/content_4993067_8.htm(검색일: 2006.10.20).

漢語熱彰顯文化軟實力。『中國改革報』。<http://www.crd.net.cn/ShowNews.asp?NewsID=5401>

“和諧世界”里的豐富世界。http://news.xinhuanet.com/world/2006-08/23/content_4993067_1.htm(검색일: 2006.10.20).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507/25/yonhap/v9676990.html>

Study on Transformation of China's Foreign Policy : Focusing on Proposal of 'Harmonic World' and Strategical intention

Ha DoHyung

KNDU, Assistant Professor
RINSA, 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This paper studies, related with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China's foreign policy, that the proposal of 'Harmonic World' is introduced with the early stage of transformation of foreign policy based on the proposal of peaceful rising and the adjusting stage based on the proposal of peaceful development. The 'Harmonic World' proposed through these processes is a long-term goal as well as an ideological course of China's foreign policy. Also it has an aspect of practical foreign policy with strategical intention. But there is not only a certain gap between China's realistic status and its pursuing strategical intention but also a limit to the fulfillment of responsibility coinciding with its increasing state power and influence. In case of not overcoming this limi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hetoric of Harmonic World' will degrade to faded vision inclined toward the revival of Chinese nation.

Key Word : China's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 Peaceful rising,
Peaceful development, Harmonic World